

추억 소환 설렷는데 볼수록 아리네

TODAY 0 | TOTAL 46590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2008년 고등학교 배경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 슬라이드 폰·싸이월드 그 시대 음악 등 감성 충만 디지털 언급 타 드라마 2배 화제성 '눈물의여왕' 이어 2위



'선재 업고 튀어' 드라마의 한 장면.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식빵 리필이 가능한 캔모아에 모여서 아삭한 팥빙수를 씹어 먹고, 좋아하는 남학생의 싸이월드를 들락거려다 용기를 모아 1촌을 신청한다.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이하 '선업투')의 주인공인 19살 고등학생 임술의 일상이다.

2일 방송가에 따르면 2000년대 복고 감성을 소환한 드라마 '선업투'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시청률 자체는 3~4%대로 높지 않지만, 화제성만큼은 여느 인기 드라마 못지않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4월 셋째 주 편덱스 리포트에 보면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눈물의여왕' 뒤를 이어 화제성 2위를 기록했다.

tvN은 "2023년 하반기 이후 론칭한 tvN 월화드라마의 평균 지표와 비교해 디지털 언급량은 2배가 넘는 234%의 수치를 보이고, tvN 토일드라마 평균에 비해서도 228%라는 화제성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처음 전파를 탄 '선업투'는 열렬하게 좋아하던 남자 톱스타 류선재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살리려 과거로 간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타임슬립 로맨스물이다.

30대 취업 준비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여자 주인공 임술(김혜윤 분)은 2008년 19살로 되돌아간다. 옆 학교에 다녔던 고등학생 류선재(변우석)를 만나고, 그를 살리기 위해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다.

2008년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레트로' (복고) 분위기로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학생들은 슬라이드폰과 폴더폰을 들고 다니며, 각종 특수 기호로 만든 이모티콘을 써가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싸이월드 방문자 수가 인기의 척도고, 캔버스 신발과 지삭 손목시계 등이 '교복 패션'으로 유행이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모아둔 용돈을 들고 동대문 옷시장으로 쇼핑을 가고, 괜히 마음을 티 낸답시고 싸이월드 배경음악을 바꾸는 드라마 속 장면들도 추억과 공감을 자아낸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응답하라 2008"을 보는 것 같다", "싸이월드 감성"이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인터넷 소셜 같으면서도 풋풋하게 그려낸 첫사랑 이야기가 설렌다", "귀여운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두 주인공의 서사가 마음 아리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곳곳에 삽입된 추억의 음악도 분위기를 한층 살린다는 평을 받는다.

류선재가 임술에게 우산을 씌어주는 장면에서는 에픽하이와 윤하의 '우산'이 흘러나오고,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 유명했던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브라운아이즈의 '점점' 등도 적재적소에 깔리면서 보는 재미를 더한다.

무엇보다 최애를 직접 만나 '성덕' (성공한 덕후)이 되는 전개가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관련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삶의 의지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던 임술은 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게 된 국내 최정상 스타 류선재의 노래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아 '열혈팬'이 된다. 임술의 방은 류선재 굿즈로 가득하다. 각종 포스터와 포토카드, 응원봉과 피규어는 기본이고, 등산대까지 놓여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겨워하던 임술이 과거로 돌아가 류선재를 직접 만나고, 이웃 친구가 됐다, 서서히 사랑을 싹틔워가는 전개는 '덕질'을 경험해봤다면 누구나 쉽게 과몰입할 법한 서사다. 8화까지 방송된 '선업투'는 반향점을 돌아 본격적으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두 주인공의 로맨스는 한층 짙어졌고, 류선재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Home

Profile

Diary

Photo

Board

Visitor

Setting

BTS 정국 '세븐' 또 기록

세계 200개국서 최애곡 1위

그들 방탄소년단(BTS) 정국(사진)의 솔로 히트곡 '세븐'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로 선정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지가 발표한 '미국 밖에서 가장 히트한 노래'에 따르면 '세븐'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등 경쟁한 히트곡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 순위는 빌보드가 작년 4월 8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 성적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곡 상위 10개를 발표한 것이다.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200여개국의 온라인 스트리밍과 디지털 판매량 등을 토대로 한다.

지난해 7월 공개된 '세븐'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하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최단기간에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인기를 누렸다. 정국은 이 노래로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MTV 유럽 뮤직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즈' 등 해외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잇따라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연합뉴스



임영웅 싱글 개봉박두

타이틀곡 '온기' 티저 공개...6일 오픈

임영웅이 더블 싱글 타이틀곡인 '온기'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2일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밝혔다.

티저 영상에는 임영웅이 절벽 위에 서 있는 모습과 함께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임영웅의 더블 싱글은 오는 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에 공개된다.

임영웅은 더블 싱글을 발매 이후 공식 캐릭터를 출시하고 25~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고경표 '비밀은 없어' 첫방 시청률 1.9%

배우 고경표 특유의 코믹 연기가 돋보이는 드라마 '비밀은 없어'가 시청률 1%대로 출발했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 처음 방송된 JTBC '비밀은 없어' 첫회 시청률은 1.9%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과 아나운서 송기백(고경표 분)의 전한 사회생활이 그려졌다.

항상 반듯하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송기백은 거절을 모른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해 아나운서 팀장 아들의 직업 체험 촬영을 돕고, 방송 사고가 나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시

말서를 쓰며 책임을 떠안는다.

결국 아나운서 팀장의 제안으로 뉴스 대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송기백은 불의의 사고로 인생이 뒤바뀐다.

촬영 중 감전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의식을 되찾은 후부터 거짓말을 못 하는 몸이 된다. 흔한 입에 발린 소리조차 못하고, 거짓없는 막말 하게 된다.

주인공이 속 시원하게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내뿜는 장면들은 카타르시스와 웃음을 안긴다. 예능작가 온우주로 출연한 강하나도 밝고 발랄한 에너지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연합뉴스



'비밀은 없어' 한 장면.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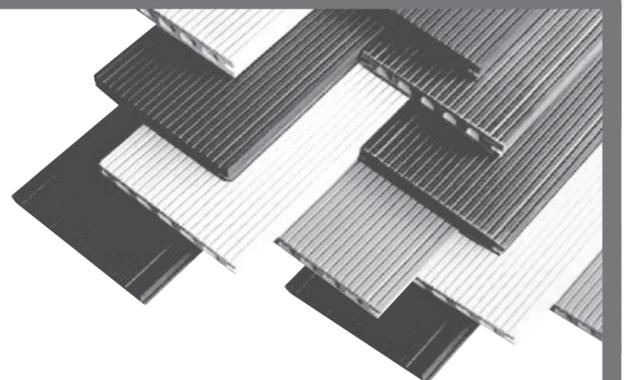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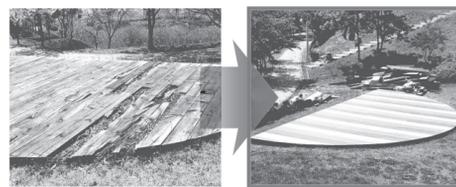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